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성경 스님과 재가불자들의 모습. 짧은 영어실력에도 과감하게 대화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 인상깊었다.


영어로 반야심경을 봉독하는 모습.


불교영어단어를 칠판에 써가며 설명하는 김현실 지도교사와 수강생들의 모습.

외국인 사찰오면? "May I help you?"

비로자나국제선원 성인영어담마스쿨 현장

노덕현 · 김지원 기자

"Nice to meet you, 스님."

"Nice to meet you too. May I help you?"

6월 12일 서울 홍은동에 위치한 한 사찰의 법당에서 난데 없는 영어 소리가 들려온다. 스님과 재가자가 한데 어울려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비로자나국제선원의 성인영어담마스쿨이다. 어색해 하던 사람들은 더듬더듬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다.

이날은 비로자나국제선원이 성인영어담마스쿨을 개강한지 두 번째 되는 날, 이날 처음 나오는 2명의 수강생을 포함해 총 10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 이들은 '불교영어 초급(조계종출판사)'을 교재로 기초 불교용어 익히기, 발음교정, 회화 등을 진행했다.

강사는 국제포교사 2기로 지난 2007년부터 비로자나국제선원 성인영어담마스쿨 지도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보현 김현실 씨다. 김 씨는 사람들이 한국어로 대화를 나눌때마다 "In English! No Korean"라며 호통 아닌 호통을 쳤다.

담마스쿨에서 수강생들은 2명씩 1조가 돼 프리토킹 연습을 했다. 더듬더듬 대화를 이어가던 중, 김 씨는 각 조를 돌며 코칭을 했다. 그러자 다소 얼어있던 분위기가 풀어지며 웃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눈도 못 마주치고 쑥스러워하던 수강생들은 '아이컨택' '추임새' 등 코치대로 바로 적용해가며 점점 더 자신감이 붙었다.

"스님, I heard a lot about you."

"어... Nice to meet you too."

"그럴 때는요. 이렇게 한 번 추임새를 넣어줘요. 'Really?' 'Oh, I see.' 한 번 해보세요. 쑥스럽다고 눈을 피하고 얘기하는 게 버릇이 되면 안돼요."

수업에서는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그때 우리말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수업 초반엔 영어와 국어를 섞어가며 얘기하던 수강생들이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말보다 영어 사용이 더 많아졌다.

우리말로 질문했던 수강생이 나중 가서는 자발적으로 영어로 질문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각자 역할을 정해 대화 상황을 구성하는 시간에는 적극적인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사찰에서 처음 방문한 시민과 스님이 만나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 제시되자 각자 다른 내용으로 자유롭게 대화를 이어나갔다. 한 조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From now, you just think and tell me the words about 'The life of Buddha'. I'll give you a few seconds."

이어 '부처님의 생애' 하면 연상되는 단어를 생각한 뒤 칠판에 적는 수업에서는 'Enlightenment(깨달음)' 'Born in India(인도 출생)' 'Gave a talk Dharma(법을 설함)' 'Nirvana(열반)' 'Compassion(자비)'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싯다르타 태자 등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자 김 씨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손주들에게 부처님 생애를 재미있게 얘기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철학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우선 단어 위주로 써놓고 문장으로 연결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님의 생애에선 '타임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고따마 싯달타가 '왕자'였다는 점, 어머니 마야부인과 출산 7일 만에 작고한 점

출재가 한데 모여 회화 연습
부처님생애 등 주제로 대화
영어실력 함께 자신감 향상
"외국인에 불교 알리고 싶어"

등을 역사적인 배경지식을 먼저 떠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쉬는 시간에도 수강생들의 학구열은 쉼 없었다. 법명과 불명이 어떻게 다른지 묻는 질문이 나오자, 수강생들 중 실제 스님이 직접 그 차이를 설명하기도 했다.

수업을 마치고 수강생 묘인 임덕은 씨는 "어린 조카가 미국에서 살다 와 불교에 쉽게 접근할 수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어린이 영어 법회나 영어 캠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비로자나국제선원은 이전에 조카에게 추천했던 곳인데 이제는 내가 와서 강좌를 듣게 됐다"며 "제가 좋아하는 불교를 영어를 통해서 또 공부하니까 좋은 기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씨는 "중국어 전공인데, 향후 한중영 3개국어를 활용한 불교콘텐츠를 기획하고 싶다"고 말했다.

수업을 들은 법련사 성경 스님은 "외국인들이 사찰에 와서 물어볼 때 사실 말문이 쉽게 띄어지지 않는다.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는 불교영어단어로 회화 공부를 하니,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보다 많은 스님들이 불교영어 강좌를 듣고 포교에도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태금 신동섬 씨는 "불교교리도 함께 익힐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비록 영어 회화 수준이 낮지만 조금씩 늘어 국제포교에도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성인영어담마스쿨이 끝나자 모인 참가자들은 각자 준비해온 과일 등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다. 이날 강좌를 진행한 김현실 씨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외국인들이 사찰에서 불교에 대해 물어봤을 때 무엇부터 설명을 해야 할지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하는 국제포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눈높이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다. 불교영어 단어 중 쉬운 영어단어라도 무시하지 말고, 회화에서의 활용법을 숙지해 상황이 됐을 때 서스럼 없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참가자들은 이어 비로자나국제선원 1층에 위치한 카페로 이동해 차담을 이어갔다. 뒤돌아 나오는 길, 한국불교 세계화의 밝은 미래가 그려졌다.

"영어 포교에 불교 미래 있어요"

비로자나국제선원장 자우 스님



비로자나국제선원은 2006년 10월 창건 이후 2017년 7월 현재 홍은동으로 새 도량을 마련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로자나국제선원은 '청정한 자성불의 회복과 불교의 세계화'를 창건 이념으로 다양한 영어교육과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 왔다.

스님은 "불교 영어회화를 통해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이끌어 내고, 이를 불교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라며 "스님들을 비롯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로 영어공부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우스님은 "불교를 매개로 영어를 배움으로써 불교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 것은 물론 영어 실력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국제적인 인재양성과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